

Chomsky 언어학 이론의 배경

양 우 진

- 목 차 -

- I 서 론
- II 시대적 배경
- III 이론적 바탕
- IV Chomsky 언어학 이론의 실제
- V 결 론

I 서 론

추상적인 철학의 이론을 전개할 때나 복잡한 과학 이야기를 할 때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속된 말을 주고 받고 할 때나 우리들은 항상 언어의 힘을 빌린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사회활동은 언어의 덕분을 토포히 받으며 언어 없이는 인간사회란 결코 생각할 수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 언어란 도대체 무엇이나 라는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한개의 Community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호의 체계를 언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와 같은 기호를 언어기호 (linguistic symbols) 라고 한다.

인간이 자기의 의사나 감정을 표시하기 위하여서는 언어기호 이외의 여러 수단을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자고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어기호가 가장 인간에게는 적합한 것 같다.

여기 현대 변형-생성문법이론의 원조인 Chomsky의 언어에 관한 견해를 보면

One requirement that a grammar must certainly meet is that it be finite. Hence the grammar cannot simply be a list of all morpheme (or word) sequences, since there are infinitely many of these. A familiar communication theoretic model for language suggests a way out of this difficulty. 1)

라고 말하고 또한 문장과 문법의 관계를 이야기 하고 있다.

즉, 한 언어의 문장의 수는 무한이지만 문장을 기술하는 문법은 유한이어야 한다. 문법자체가 무한이라던 문법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만다. 즉 문법이 언어현상을 나열 (listing)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 문법은 언어가 지니고 있는 요소간의 내적 유기성을 기술할 수가 없다. 언어현상을 발견하고 이것을 나열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던 구조주의의 모순은 여기에 기인한다.

문법을 이루는 기본 요소의 수는 유한이어야 하지만, 이 유한한 기본요소를 가지고 무한한 문

1) N. Chomsky, "Syntactic structures", p 18

장을 설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반복특성 (Recursiveness) 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유한요소로써 무한문장을 기술할 수 있게 된다. 변형—생성문법의 한가지 특징은 이 반복특성을 언어학이론에 구현시켰다는 것이다.

구조주의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까지 Chomsky는 언어과학으로 분석, 연구 할려고 하고 있다. 즉 전통주의나 구조주의를 비판하는 새로운 언어학 연구방법이 Chomsky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 Chomsky 이론에 대한 언어철학적인 배경과 시대성, 또한 그의 이론을 몇자 소개하고자 한다.

II 시대적 배경

J. T. Waterman의 말을 빌리면

If the student of linguistics or the structural grammarian is to become something more than a well-trained technician, he must sooner or later develop an awareness of his intellectual heritage; he must learn that the ideas which he find so new and so stimulating are rooted in along tradition. This is a necessary but frequently neglected part of his education.²⁾

라고 말하고 있다. 어느 하나의 새로운 사조나 방법론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앞서 있어 온 것에 대한 조예를 넓혀야 한다는 것은 모든 학문에서 이미 하나의 상식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Chomsky의 참된 이해를 위해서는 그 주변학문들과의 횡적인 연관도 중요하겠지만 그가 부정하고 나선 structuralism의 이해가 선행해야 할 것이고 그 structuralism이라는 것도 실은 Saussure로 해서 다시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종적인 언어학에 대한 개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중세기의 암흑시대를 거쳐 범어 (Sanskrit) 의 발견을 계기로 하여 언어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였다. 즉 1796년 William Jones는 범어가 유럽의 고전어인 희랍어 라틴어와 친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비교언어학 및 역사언어학의 시발점이 이루어 졌다.

여기에 대한 Jespersen의 견해는

The Sanskrit language, whatever be its antiquity, is of wonderful structure; more perfect than the Greek, more copious than the Latin and more exquisitely refined than either; yet bearing to both of them a stronger affinity, both in the roots of verbs and

2) J. T. Waterman, "Perspectives in linguistics", p. 7.

in the forms of grammar, than could possibly have been produced by accident; so strong, indeed, that no philologist could examine them all three without believing them to have sprung from some common source, which, perhaps, no longer exists. There is a similar reason, though not quite so forcible, for supposing that both the Gothic and the Celtic had the same origin with the Sanskrit; and the old Persian might be added to the same family.³⁾

라고 말하고 있다.

Friedrich von Schlegel (1772~1829)은 처음으로 비교문법 (Vergleichende Grammatik, Comparative Gramma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⁴⁾ 그후 이 방면의 연구는 Rasmus Rask (1787~1832), Jacob Grimm (1785~1863), Franz Bopp (1791~1867) 등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었다. 특히 Jacob Grimm은 그의 유명한 저작 Deutsche Grammatik (1819~1822)를 내놓아 Germanic languages와 기타의 인구어 (印歐語) 사이에 게재되는 자음전이 (consonant shift)에 관한 법칙을 발표하였다.

여러 언어 사이에 게재하는 상호 연관성을 규명하려는 비교언어학은 자연히 역사언어학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왜냐하면 언어를 비교하여 시대적으로 소급하면 언어의 변천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언어학의 발달과 더불어 역사언어학이 급속도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역사라는 개념을 언어에 적용시켜 변천과 발전의 상에서 언어를 고찰하여 언어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언어를 하나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언제나 변화하며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유동성을 언어의 참모습이라고 보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언어학이 이룩한 커다란 발견이라 하겠다.

Grimm 역시 언어가 항상 유동적이라는 데 착안하여 문법은 한 시대의 언어의 양태를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시대를 통한 언어의 변화상을 기술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언어를 고찰함으로써 역사언어학의 선봉이 되었다. 소장문법가 (young grammarians)⁵⁾의 한 사람인 Hermann Paul은 「인간문화의 모든 사물이 그러하듯이 언어도 역사적인 고찰의 대상이 되며 모든 역사과학의 여러 분과와 더불어 언어의 역사도 하나의 과학으로 존재할 수 있다. 언어사는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모든 사물의 일반적인 생활조건에 관여하여 모든 변화를 통해 언제나 존재하는 요인의 본질과 활동을 연구하는 것」⁶⁾이 언어사의

3) Jespersen, "Language", pp. 33-34

4) In F. von Schlegel's Über die Sprache und Weisheit der Indier.

5)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6) Paul,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p. 1

목적이라고 말하였다.

언어사를 이렇게 해석한다면 언어의 연구도 당연히 역사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언어 연구에 진정한 과학성을 부여하려면 비교적인 방법과 역사적인 방법이 병행하여 양자가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기술언어학이 필요하게 된다.

비교언어학이나 역사언어학이 언어의 상호 연관성이나 또 원시어의 재건을 목적으로 한다는 손치더라도 우선 이러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언어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고찰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한 언어의 상태를 일정시를 기준으로 기술하여 이러한 객관적인 기술을 통해 해당 언어가 내포하는 일반 원칙을 규명하려는 것이 기술언어학의 목적이다. 시간적으로 보아 기술언어학과 비교 역사언어학은 대조를 이룬다. 후자가 시간적으로 보아 종적으로 시간의 경과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비해 전자인 기술언어학은 일정한 시간의 평면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않는다. 후자는 동적(dynamic)이고 전자는 정적(static)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관점과 기술적인 관점을 넓은 의미에서 규정한 것이 Ferdinand de Saussure이다. 그는 정적언어학(La linguistique statique, static linguistic)와 진화적언어학(La linguistique evolutive, evolutive linguistics)이라는 항목에서 언어 연구의 방법론에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마침내 방법론의 차이에 입각하여 통시언어학(linguistique diachronique, diachronic linguistic)과 공시언어학(linguistique synchronique, synchronic linguistics)의 체계를 설정하여 「동일한 대상에 대한 두 개의 질서를 가지는 현상을 가려내기 위해 두 개의 언어학의 창설」을 제창하였다.⁷⁾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적으로 언어를 관찰하는 통시언어학은 언어의 역사와 진화를 다루고 일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횡적으로 언어 현상을 고찰하고 공시언어학에서는 언어의 일정시의 상태를 기술하게 된다.

1925년 이후에 하나의 중요한 연대를 들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1933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Bloomfield의 language가 나온 해이기 때문이다.

그는 본래가 과묵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을 싫어했고 제자도 많지 않았다. 그 보다는 오히려 Boas나 Sapir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시적인 상상력과 직관에 뛰어난 Sapir는 특히 많은 제자를 길러내는데 반해 Bloomfield는 직계의 제자를 길러내지 못했다. 그는 school이라는 걸 싫어했다.

그는 언어이론에 약간의 공헌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를 기술언어학의 시조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언어분석의 technique나 procedure개혁의 공로는 Boas나 Sapir에게 돌려져야 할 것이다.

7)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 1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국구조 언어학의 기둥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해답은 1949년에 Bloch가 쓴 Bloomfield의 추도논문에서 찾을수 있을 것이다. Bloch는 Bloomfield의 공로를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re can be no doubt That Bloomfield's greatest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language was to make a science of it⁸⁾

Bloomfield의 "Language"는 그 소박하고 직선적인 문체로 말미암아 언어학에 소양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쉬워보이나 그 속에 압축된 내용을 알게 됨에 따라 독자들은 읽어가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을 쉬 알게 된다.

"Language"에 의해서 논리적근거를 얻게 된 미국의 구조언어학은 "language"에서 제시된 원리의 증명및적용, 그 원리에 입각한 분석의 technique와 procedure의 발전으로 매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Bloomfield는 그 뒤에 오는 미국언어학의 화원의 밑거름이 된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광벽으로 말미암아 미국 구조언어학은 그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다시 한번 구라파 언어학과의 불교섭 속에서 지나게 되었다. 미국 구조언어학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aboriginal language와의 접촉에서 field work의 기술을 발전시켜온 결과 실현엔 강하나 이론엔 약한 힘을 갖게 되었다. 이렇다 할 field work는 없이 순수이론으로만 뻗어나간 Copen hagen School의 glossematics와는 좋은 대조라고 할 것이다. phonemics와 morphology의 개척자인 Pike나 Nida가 모두 선교사이며 성서번역이나 선교사들의 언어훈련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와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Text signals its own structure,⁹⁾라는 종래의 태도도 미국 언어학이 출발한 입지적 조건이나 동기등을 생각할때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model이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Phoneme에서 Syntax로 올라가는 Grammatical hierarchy와 Separation of level이 강행되었고 text 속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은 그들은 형태가 달라지면 뜻도 달라진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말을 뒤집어 말하면 형태가 같으면 뜻도 같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Surface structure가 늘 deed structure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¹⁰⁾ 종래의 IC-analysis에서 하던 binary cutting이라는 것은 문법의 본질에 접근하는데 멀리 미흡하였다.

여기에 새로운 이론이 대두되었는데 그 이론은 MIT의 Chomsky에 의해서 체계화 되었다. Sentence를 Syntactical analysis의 최종 단위로 보던 종래의 태도에 반발하는 기운은 40년대 말 Pennsylvania 대학의 Harris교수에 의해서 일으켜 지고 있었다. 그 당시 그의 학생이었던 Chomsky도 Harris의 discourse analysis를 위한 transformation 연구에 참가하고 있었으며

8) Leonard Bloomfield, "Language," p. 94

9) M. Jooss, "Linguistic Prospect in the United States," in Mohrmann's Trends, p. 17

10) N. Chomsky,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p. 24

1951년에 MA를 받은 뒤 그해부터 55년까지 4년간 Harvard의 Junior Fellow로 선구되어 여유있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이 당시 그의 관심을 끈 것은 Prague School의 R. Jakobson의 언어 이론과 W. V. O. Quine 교수의 mathematical logic이었다. 특히 Jakobson의 이론은 field work 중심의 이론 불모의 미국 언어학에서 자란 그에게는 색다른 것이어서 지역적인 Corpus에 대한 이론의 중요성, 형태에 대한 의미의 중요성, 언어의 Particularity와 arbitrariness에 대한 universality의 강조 등으로 특징 지워졌다. Chomsky는 이와같은 언어관에 입각한 언어 이론을 mathematical logic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언어의 transformation의 이론만이 가장 타당한 방법임을 발견하게 되었다.¹¹⁾ 이 동안의 그의 연구결과는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 theory로 나타났으며 그중의 일부 transformation Analysis로서 1955년에 Ph.D.를 받게 되었다.

그 이후의 연구결과와 이론적 근거를 Syntactic Structure로서 1957년에 The Hague에서 발표하였는 바 이것이 미국언어학의 신기원을 획하는 기념비적 저서가 되었다.

III 이론적 바탕

1920년대부터 Syntactic Structure (1957)가 출판될 때까지의 약 30년간을 미국언어학계는 구조주의 (Structuralism)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American Indian languages의 새로운 언어 구조에 접하여 자극된 이들의 "leave your language alone"적인 태도는 언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야 한다는 발견과정 (discovery procedure)에 집착하게 되었고, 특히 세계제 2차대전에서 외국주둔 미군에게 외국어의 실용면을 가르쳐야 한다는 데서 발견과정을 수반하는 언어교육의 소위 "새로운 방법" (또는 언어학적 방법 linguistic method)이 대두하게 되었다.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를 중심으로한 Pike적인 방법론은 철두철미 언어의 외형 즉 표면구조 (surface structure)의 기술에 전신경을 집중하였다. 여기에 대표적인 언어의 정의를 보면, "A language is a system of arbitrary vocal symbols by means of which a social group cooperates"¹²⁾

30년간의 미국 언어학 발달은 주로 음성조직 (Phonological system)에 국한되어 왔으며, 이러한 근시적인 태도가 언어학적 성격을 왜곡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어학 이론은 관찰된 자료만을 해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관찰되지 않은 언어현상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론과 이와 관련하여 언어학습의 이론도 이러한 이론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피상적인 것이 되고 만다. 모국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11) N. Chomsky,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syntax," p. 240.

12) G. L. Trager and B. Blach, "Outline of Linguistic Analysis." p. 5.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이해하고 생성하는 언어표현이 그의 언어경험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언어 경험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의 모국어에 대한 언어의 생산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에 대한 비경험적인 생산능력과 예언능력을 언어학이론이 해명해야 한다. 변형-생성론자 (transformationalist) 가 주장하는 근본적 이론의 기초는 17세기의 이성주의 (Rationalism) 에서 시작된다. 이에 반하여 1920년대부터 50년대의 중기까지 미국 언어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구조주의는 그 이론적 근거를 18~19세기의 경험주의철학 (empiricism) 에 두고 있다.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는 각각 언어의 본질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경험주의적 언급인, "That There is nothing in the Understanding, but what has past through the Sense", 에 따르면 인간의 지식이며 인식작용 (Cognition) 은 모두가 과거의 경험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후천적인 경험 또는 교육, 다시 말하면 외부적인 자극 (external stimuli) 이 모든 인식작용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주의적 (behavioristic) 인 관점에서 볼 때 언어의 본질을 언어수행 (linguistic performance) 에서 찾게 되며, 결과적으로 인간 개인이 경험한 언어자료가 언어학 이론 또는 기술의 대상이 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구조언어학은 언어자료를 나열하고 자료내에 포함된 문장들의 유형을 구별하고, 있는 그대로 문장내의 구성요소간의 상호관계를 기술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한편 이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언어는 앞에서 설명한 구조주의적인 해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선 인식작용에 대한 개념에서 시작하여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성주의적인 인식작용은 외부적인 자극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인식작용은 유심적인 실재 (mental reality)¹³⁾이며 그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상상에 연유하는 것이 아니다. 즉,

"Cognitive Power" as a faculty which is not purely passive and which is properly called mind when it either forms new ideas in the fancy or attend to those already formed." acting in a way That is not to Completely under the control of sense or imagination or memory.¹⁴⁾

이와 같은 이성주의적인 인식론은 언어의 본질을 후천적인 언어학습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니는 선천적인 언어능력에서 찾으며 외부적인 자극은 다만 이러한 내면적인 언어능력을 시동시키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동물의 통신 (communication) 과 인간언어의 경계선을 찾을 수 있다. 동물의 경우에는 완전히 외부의 자극에 의한 조건반응 (Conditioned reflex) 으로서 통신이 존재하며 인간언어는 내적이고 유심적인 언어능력에서

13) J. J. Katz, "Mentalism in Linguistics," language 40. 124~137

14) N. Chomsky, "Cartesian Linguistics." p.78.

그 근원을 찾게 된다. 따라서 외부적인 자극에 비록 제한은 없으나 동물의 경우에는 통신이 기계적인 자동장치 (mechanical automata) 에 불과하며 Switch를 넣어야 발동하며 switch가 움직이는 전환 가능회로의 수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인간의 언어능력은 외부적인 자극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동작은 무한한 확장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Truly active minds will be "such, that assisted by the subject Only, [they will] without the help of any body, produce a thousand concepts they never heard or spoke of."¹⁵⁾

동물의 통신과 인간의 언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부적 자극에 지배되는 것이 동물이라면 인간 언어는 외부 환경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appropriateness of behavior to situations" from "control of behavior by stimuli." The latter is characteristic of automata; It is The former that is held to be beyond the bounds of mechanical explanation, in its full human variety.¹⁶⁾

구조주의와 변형-생성이론은 앞에 설명한 여러가지 외부적 자극과 내면적 능력의 차이를 언어학 이론에 구현시킨 각각의 대표적 모형 (model) 이라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구조주의는 언어학 이론 또는 기술의 대상을 제한된 언어자료 (여기서문장의 집합이라고 하자) 에 두고 있으며 변형-생성이론은 좀더 언어의 내재성에 관점을 두고 인간 교유의 무한한 (infinite) 언어능력을 언어학 이론의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구조주의에서는 과거의 언어경험과 이에 연유하는 기억 또는 유추 (analogy) 로서 언어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Bloomfield를 예로 들면 인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언어표현 (utterance) 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he utters them on the analogy of similar forms which he has heard."¹⁷⁾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결국 Bloomfield는 인간언어와 동물통신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며 차이가 있다면 동물통신이 열가지의 의사소통을 한다면 다만 인간은 이보다 수가 많다는 것 뿐이다. Hockett도 역시 Bloomfield와 거의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it has been said that whenever a person speaks, he is either mimicking or analogizing,when we hear a fair long and involved utterance which is evidently not a direct quotation, we can be reasonably certain that analogy is at work."¹⁸⁾

15) Ibid., p. 79

16) Ibid., p. 77

17) L. Bloomfield, "Language," p. 275

18) C. F. Hockett,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p. 45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표현을 깊이 관찰해 보면, 위에서 Bloomfield나 Hockett이 주장한 것과 같이 언어생활이 반복 (repetition) 모방 (mimic) 또는 유추에 의한 것만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Descartes의 이성주의적 언어행동에 대한 해설을 보면,

“.....verbal behavior' is free of ident if able external stimuli or internal physiological states, so it is evidently not developed in the individual by conditioning.”¹⁹⁾

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언어표현을 들었을 때 이해하고 또한 자기 자신이 이러한 언어표현을 생성 (generate) 하는 창조적특성 (creative aspect) 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견지에서는 언어는 분리된 항목 즉 단어, 음성, 문장들을 수집해 놓은 목록이 아니라 유기적인 상호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규칙의 체계 (anorganic system of rules) 라야만 한다. 그래야 무한한 언어의 창조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즉,

“.....a language is not to be regarded as a mass of isolated phenomena—words, sounds, individual speech productions, etc. —but rather an“organism”in which all parts are interconnected and the role of each elements is determined by its relation to the generative processes that constitute the underlying form.”²⁰⁾

이러한 언어에 대한 견해가 Humboldt²¹⁾의 언어철학의 기본이며 여기에 연유한 것이 Chomsky의 변형—생성문법의 이론이라고 하겠다.

Descartes—Humbolt—Chomsky의 계열을 따라온 언어학이론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언어의 “창조적특성”을 기본으로 하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조작상의 문제로 창조적 특성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규칙의 체계 (system of rules) 인 문법이 창조적 특성, 즉 언어의 무한성을 포용할 수 있는 문법장치 (grammatical device) 가 있어야 함이 명백하다.

.....an essential property of language is that it provides the means for expressing indefinitely many thoughts and for reacting appropriately in an indefinite range of new situations.”²²⁾

또한 문법이 항목의 나열이 아닌 것이라야만 이러한 창조적 무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9) C. F. Hockett,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p. 45

20) N. Chomsky “Cartesian Linguistics.” p. 80

21) N. Chomsky, “Cartesian Linguistics.” p. 26

22) N. Chomsky, “Aspects,” p. 6

“.....linguistic studies implicitly contain recursive devices and thus provides for infinite use of the finite means that it disposes, as any adequate theory of language must.”²³⁾

따라서 여기서 언어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a language to beaset (finite or infinite) of sentences, each finite and constructed out of a finite set of elements.²⁴⁾

언어를 문장의 “유한” 또는 “무한”의 집합으로서 양면성을 보인 것은 전자의 경우에서 기계 언어 (mechanical language), 즉 수학적인 기호언어나 전자계산기언어 (computer language) 등의 기호와 조작이 한정되어 있거나 기억저장(memory storage)이 제한되어 있는 언어를 의미하며 후자가 인간의 자연언어를 의미한다. 또한 이 정의에서 문장의 길이가 유한하다는 것은 실제적인 편지에서 본 문장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며 이론적으로는 문장의 길이는 무한이다. 문장의 길이가 무한하다는 사실은 한 자연언어가 포함하는 문장의 수가 무한하다는 언어의 본질을 뒷받침 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의 각각을 따르는 언어학 이론의 구조주의와 변형생성 이론은 언어철학의 양면을 각각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어느 측면이 언어의 본질을 진정 취급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장에서 언어의 내면구조(deep structure)가 본질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논술했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는 다시 언어능력과 언어수행(performance)이라는 이원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we thus make a fundmental distinction between competence(the speaker—hearer's knowledge of his language)and performance(the actual use of language in concrete situation)....Hence, in the technical sense, linguistic theory is mentalistic, since it is concerned with discerimgov a mental reality underlying actual behavior.”²⁵⁾

따라서 문법은 화자와 청자가 지니고 있는 언어능력을 기술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A grammar of a language purports to be a description of the ideal speaker—heavr's intrinsic competence.”²⁶⁾

여기에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변형—생성 이론에서 말하는 언어능력과 언어수행이 이원적 구

23) N. Chomsky, “Cartesian Linguistics”, p. 41

24) N. Chomsky, “Syntactic Structures”, p. 13

25) N. Chomsky, “Apecsts”. p. 4

26) Ibid., p. 4

분이 Saussure의 language—parole과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으나 saussure의 langue는 오히려 항목의 집합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변형—생성이론의 언어능력은 내면적인 생성과정(generative process)의 유기체이다. 즉,

The distinction I am nothing here is related to the langue-parole distinction of Saussure; but it is necessary to reject his concept of langue as merely a systematic inventory of items and to return to the Humboldtian conception of underlying competence as a system of generative processes.²⁷⁾

이러한 Saussure의 견해에서 본다면, 현대적인 구조주의의 언어학 이론은 Saussure의 계승이라고 하겠고 Chomskian Generative Theory는 Humboldt의 계보에 속한다고 하겠다.

III Chomsky 이론의 실재

문에는 그 구조가 대단히 간단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긴 것이 있다. 변형문법에서는 문 중에서 구조가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형식(pattern)으로 되어 있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내면구조(deep structure)와 표면구조(surface structure)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을 골라 이것을 핵문(Kernel Sentence) 또는 핵형식(Kernel Pattern)으로 삼고, 그 외의 모든 문을 이 핵문내지 핵형식의 변형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 단계로 핵문의 구조를 직접구성 요소로 분석하여 완전히 파악한다음 일정한 변형규칙을 적용하여 여러 표면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으로 바꾸는 과정을 밟는 것이 변형문법의 작업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시 하여야 할 것은 변형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표면구조(surface structure)와 내면구조(deep structure)인 것이다. 즉

「The theory claims that sentence have a surface structure and deep structure.」²⁸⁾

「deep structure : The grammatical structure of the base(or bases)underlying the surface structure of a sentence」²⁹⁾

「Surface structure : the apparent structure of a sentence, as opposed to the underlying structures which have been transformed to produce it. The surface structure determines The Phonetic character of a sentence.」³⁰⁾

라고 Cattell은 표면구조와 내면구조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문장의 내면

27) Ibid., p. 4

28) N. R. Cattell, "The design of English", p. 19

29) Ibid., p. 111

30) Ibid., p. 116

구조라 함은 문장표면의 저변에 깔려 있는 내면의 문법적 제관계와 문장의 의미판단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형식 표시를 말한다. 그와 반면에 표면구조라 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실지로 관찰할 수 있는 통어적 구조(Syntactic structures)의 형식표시를 말한다. 이와같은 표면구조와 내면구조를 어떻게 표시하고 변형생성 문법에서 문장을 다루는 방법을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Cattell의 The design of English를³¹⁾ 참고로 하여 몇자 적어 보고자 한다.

변형문법에서는 핵문을 직접구성요소로 분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나 생성문법에서는 문을 만드는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My	Son	will	be	the	leader
			Be	Det	N
					P
Det	N	Aux	VP		
NP			PreD Phr		
Sentence					

변형문법에서는 My son will be the leader라는 핵문을 토대로 하여 이것을 우선 my son과 will be the leader라는 직접구성 요소로 분석하여 주어(=Noun Phrase)와 술어(=Predicate Phrase)로 나눈다. 주어는 다시 직접구성요소로 나누어져 my(determiner)와 son(=Noun)으로 분석된다. 술어는 조동사(=auxiliary)와 동사구(=verb phrase)로 나누어지고 동사구는 be와 /the leader/라는 명사구(Noun phrase)로 나누어진 다음 최후로 명사구가 a(=determiner)와 명사로 분리된다. 따라서 my son will be the leader은 결국 DET+N+AUX+BE+DET+N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생성문법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어떠한 규칙에 의하여 문을 만들어 나가느냐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작업이 정반대가 된다. 우선 문은 명사구와 술어구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1 차적으로,

1. S (=Sentence) → NP+Pred PHR라는 규칙이 성립된다. 그 다음 PRED PHR라는 것은 이번 에서는 조동사와 동사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 PRED→AUX+VP라는 규칙이 성립된다. 또 동사구는 BE+VP (=the leader)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 VP→BE+NP라는 규칙이 성립하고 마지막으로 NP는 DET와 명사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

31) Ibid., p.91

에

4. NP→DET+N이라는 규칙이 성립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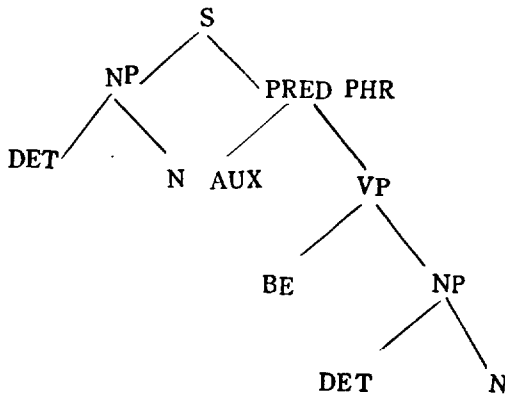
지금까지 고찰한 규칙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좌측은 개별적인 규칙을 예거한 것이며 우측은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여 점차로 문이 되어가는 과정인 파생 (derivation) 을 나타내는 것이다.

규칙	파생과정
1. S→NP+PREDPHR	1. NP+PRED PHR
2. PREDPHR→AUX+VP	2. NP+AUX+VP
3. VP→BE+NP	3. NP+AUX+BE+NP
4. NP→DET+N	4. DET+N+AUX+BE+DET+N

위와같은 과정을 밟아최후로 파생된 DET+N+AUX+BE+DET+N을 최종열 (final string) 이라고 하며 최종열 안에 들어있는 하나 하나의 요소를 구성소 (formative) 라고 한다. 이 구성소 하나하나에다 실지로 해당되는 낱말을 집어 넣으면 문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문이 생성되는 것이다.³²⁾

DET+N+AUX+BE+DET+N
 ↓ ↓ ↓ ↓ ↓ ↓ ↓
 my son will he the leader

이것을 나무가지식 도표 (branching diagram)³³⁾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이상으로서 변형-생성문법의 외파적인 구성을 살펴 보았고 특히 재래적인 구성과의 차이를 보이는 기본체제를 의미구조의 구현이라는 일면과 더불어 어휘규칙으로서 설명하였다.

32) Ibid., p. 92

33) Ibid., p. 92

V 결 론

일반적으로 언어분석을 의미에 기반을 두는 견해와 언어 이론을 유심론 (mentalsim) 에 기반을 두는 견해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구조주의적 (structuralistic) 인 입장의 견해는 의미에 입각하고 있다는 Chomsky의 주장을 잘못 생각하면 Chomsky 자신의 유심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실과 모순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쉬우나 언어분석을 의미에 의존하는 태도와 유심론적 입장에서 언어학 이론을 형성하는 것과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본고에서 논한 구조주의 대 변형—생성이론의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주로 미국의 1950년대를 전후한 언어학이론의 경향이라고 하겠으나 이러한 양면적인 경향은 그 근원이 시공적인 면에 미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은 쉽게 알 수 있다. Chomsky 자신이 Cartesian Linguistics에서 더듬어 올라간 바에만 의하더라도 17세기의 이성주의에서 변형—생성이론의 원점을 찾고 있으며 구조주의의 입장에서도 16세기의 Hume의 경험철학에서 그의 근본을 더듬어 볼 수 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낭만주의 (Romanticism) 적인 언어철학이 이성주의적인 요소를 계승하였고 경험을 근본으로하는 행동 주의 철학이 구조주의 언어 철학을 발전시켰다고 하겠다.

언어학 이론의 견지에서 볼 때 이러한 두가지 양극적인 철학의 배경을 가진 방법론을 분석—귀납 (analytic—inductive) 과 종합—연역 (synthetic—deductive) 이라는 두 측면으로 각각을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귀납적인 방법론에서는 언어기술을 여러가지 가정, 공리 또는 원칙이라는 전제에 의하여 이루어 나가려 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인간언어구조를 선천적으로 결정된 사실로 받아드리고 있다. 따라서 언어학의 목표는 언어자료를 정리하여 이 주어진 언어체계 (또는 구조) 에 맞추어 나가는데 두고 있다. 반면, 종합—연역적인 방법론에서는 전제되는 사항이 없고 기술과정마저 미리 주어지는 것이 없다. 다만 언어학자가 언어의 체계를 세워 나가며 이러한 체계가 인간이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언어능력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되면 언어학자의 본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명, 분석—귀납적인 언어학파를 “God’s Truth School”이라 하고 종합—연역적인 것을 “hocus—pocus School”이라 함은 여기에 연유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hocus—pocus School의 대표적인 인물이 Z.S. Harris라고 하겠고 이러한 전통속에서 Chomsky의 변형—생성이론이 성립되었다고 생각한다.

언어학 이론이 개별언어의 개별문법 (particular grammar) 에 머무는 한 언어의 본질을 적절히 기술하고 설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언어학적 진칭명제 (linguistic universals) 에 기초를 둔 언어학 일반이론 (linguistic general theory) 을 추구해야 한다는 과제를 변형—생성이론이 제시하고 있다.

—Summary—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Chomsky's Linguistic Theory

Yang Woo-jin

The few modern studies of the history of linguistics have typically taken the position that "tout ce qui est anterieur au XIXe siecle, n etant pas encore de la linguistique, peut etre expedie en quelques lignes.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noticeable reawakening of interest in questions that were, in fact, studied in a serious and fruitful way during the seventeenth, eighteenth, and early nineteenth centuries, though rarely since. Furthermore, this return to classical concerns has led to a rediscovery of much that was well understood in this period-what I will call the period of Cartesian linguistics, for reasons that will be sketched below.

Linguistics and cognitive psychology are now turning their attention to approaches to the study of language structure and mental processes which in part originated and in part were revitalized in the "century of genius" and which were fruitfully developed until well into the nineteenth century.

It is important to bear in mind that the survey that has been presented here is a very fragmentary and therefore in some ways a mis-leading one. Certain major figures-Kant, for example have not been mentioned or have been inadequately discussed, and a certain distortion is introduced by the organization of this survey, as a projection backwards of certain ideas of contemporary interest rather than as a systematic presentation of the framework within which these ideas arose and found their place.